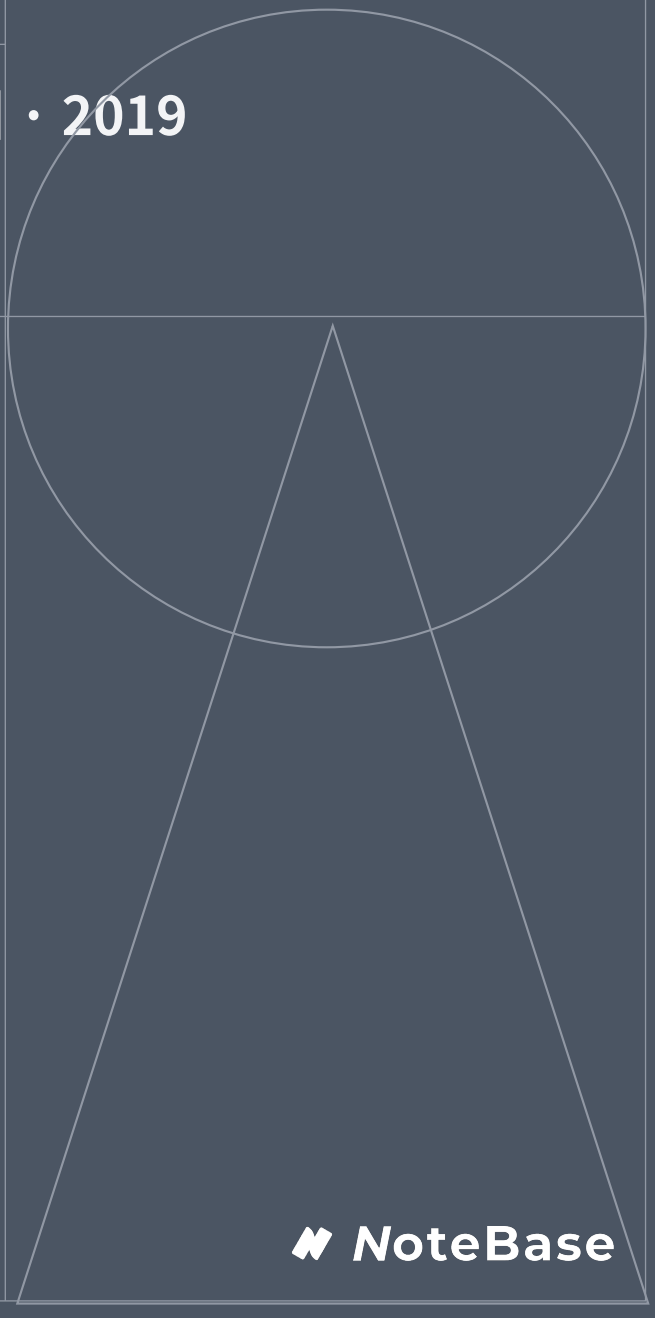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9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9

문 1.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자기 계발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_____.

① 제고된다 ② 확산된다
③ 확충된다 ④ 고무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의 주어인 '기업의 경쟁력'과 자연스럽게 호응하면서 문맥상 '경쟁력을 높인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휘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고되다는 정도나 수준이 끌어올려진다는 뜻이다. 경쟁력·효율성·생산성처럼 높고 낮음으로 평가하는 대상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확산되다는 널리 퍼진다는 뜻이고, 확충되다는 규모나 수량이 늘어나 충실해진다는 뜻이며, 고무되다는 격려를 받아 힘이나 용기가 북돋워진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제고된다'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뜻이므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문맥에 가장 적절하다.
② X — '확산된다'는 현상·사상·정보 등이 널리 퍼질 때 쓰므로 '경쟁력이 확산된다'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확충된다'는 시설·설비·인력·규모 등이 늘어나 충실해질 때 쓰므로 경쟁력이라는 능력이나 수준과의 호응이 부자연스럽다.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고무된다'는 사람이나 집단이 격려를 받아 의욕이나 사기가 북돋워질 때 쓰므로 '경쟁력이 고무된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경쟁력을 주어로 유지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모두 어떤 것이 커지거나 넓어지는 느낌을 주지만, ‘확산’은 퍼짐을, ‘확충’은 규모나 수량의 보강을 뜻한다. 이 문장에서는 경쟁력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필요하므로 ‘제고’가 알맞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의 주어와 뒤에 필요한 의미를 함께 확인한다. 경쟁력·효율성·생산성·인식처럼 수준을 높이는 대상에는 ‘제고하다’를, 정보·문화·현상이 퍼지는 경우에는 ‘확산되다’를, 시설·인력·설비를 늘리는 경우에는 ‘확충하다’를, 사람의 사기나 의욕을 북돋우는 경우에는 ‘고무하다’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경쟁력은 제고, 정보는 확산, 시설은 확충, 사기는 고무이다.

NoteBase

문 2. 문장의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들은 그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 명사절을 안은문장

② 네가 이번에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명사절을 안은문장

③ 밤이 꼬박 새도록 내 과거를 모두 이야기했다.
→ 부사절을 안은문장

④ 나는 그녀가 그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 부사절을 안은문장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안긴문장이 문장 안에서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가운데 어떤 구실을 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은문장은 다른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포함한 문장이다.
명사절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주어·목적어 등의 구실을 하며, 주로 '-(으)ㅁ', '-기'로 표시된다.
부사절은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미며, '-도록' 등의 연결 어미로 표시될 수 있다.
관형절은 뒤의 명사를 꾸미며, '-(으)ㄴ', '-는', '-(으)ㄹ' 등의 관형사형 어미로 표시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그의 행위가 정당했음'은 명사형 어미 '-음'을 통해 명사절이 되었고, 서술어 '깨달았다'의 목적어 구실을 한다. 따라서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라는 분석이 맞다.
② O — '네가 이번에 꼭 합격하기'는 명사형 어미 '-기'를 통해 명사절이 되었고, 서술어 '기도한다'의 목적어 구실을 한다. 따라서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라는 분석이 맞다.
③ O — '밤이 꼬박 새도록'은 뒤의 서술어 '이야기했다'를 꾸미는 부사절이다. '-도록'이 행위가 이어진 시간적 한계를 나타내므로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라는 분석이 맞다.
④ X — 틀린 표현은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다. '그녀가 그처럼 행복해하는'은 뒤의 명사 '모습'을 꾸미는 관형절이므로, 올바르게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절 안의 '그처럼'이 부사어라고 해서 절 전체가 부사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④의 관형절 안에 부사어 '그처럼'이 들어 있어 절 전체를 부사절로 착각하기 쉽다. 절의 종류는 절 내부의 특정 부사어가 아니라 그 절 전체가 바깥 문장에서 하는 구실로 판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긴문장 전체를 묶은 뒤 바깥 문장에서의 구실을 확인한다. 명사처럼 주어·목적어가 되면 명사절, 용언을 꾸미면 부사절, 뒤의 명사를 꾸미면 관형절이다.

암기 포인트

‘-음·-기’는 명사절, ‘-도록’은 부사절, 뒤의 명사를 꾸미는 ‘-(으)ㄴ·-는·-(으)ㄹ’은 관형절로 연결해 기억한다.

NoteBase

문 3. 다음은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을 제시한 글이다. 토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토론은 토의와 달리 규칙과 규율에 의해 이루어지나 토의는 특약이나 규율 없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대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토론이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토의는 협의를 통해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의와 달리 토론의 주제는 찬반의 명확한 입장이 잘 드러나야 한다.

①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하는가?
② 남녀 간 적절한 데이트 비용 지불 비율은?
③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④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법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토론과 토의의 목적 차이를 바탕으로, 찬반의 대립이 뚜렷하여 토론에 알맞은 주제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론은 규칙과 절차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각 측이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토의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여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말하기이다. 따라서 토론 주제는 찬성과 반대로 명확히 나뉠 수 있는 논제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는 폐지 찬성과 폐지 반대의 입장이 명확히 대립하므로 토론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② X — '적절한 데이트 비용 지불 비율'은 여러 사람이 의견을 조정하여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성격이 강하다. 틀린 부분은 이를 찬반 논제로 본 점이며, 토론 주제로 고치면 '데이트 비용은 남녀가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가?'처럼 찬반이 분명해야 한다.
③ X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여러 실천 방안을 함께 제안하고 합의하는 문제이므로 토의 주제에 가깝다. 틀린 부분은 해결 방안을 찾는 질문 형식이며, 토론 주제로 고치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처럼 찬반 논제로 제시해야 한다.
④ X —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법'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협의하는 문제이므로 토의 주제에 가깝다. 틀린 부분은 방법을 찾는 질문 형식이며, 토론 주제로 고치면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규모 공공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처럼 찬반이 갈리는 논제로 제시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모든 질문형 문장이 토론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의 '적절한 비율', ③의 '우리가 할 일', ④의 '방법'은 여러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만드는 표현이므로 토의에 가깝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를 보고 찬성과 반대로 곧바로 나눌 수 있으면 토론, 여러 대안이나 방법을 모아 하나의 해결책을 정해야 하면 토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토론은 찬반 대립과 설득, 토의는 협의와 해결책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동차의 장치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움직이기 위해 동력을 만드는 동력 발생 장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노면의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하도록 하는 현가 장치, 주행 도중 방향을 바꾸기 위한 조향 장치, 주행 중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기 위한 제동 장치, 자동차의 운전을 돕기 위한 각종 계기·조명·전기 부품 등을 포함하는 기타 장치로 되어 있다.

① 비교 ② 분류
③ 분석 ④ 정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과, 비교·분류·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석은 하나의 전체를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그 구조와 성격을 밝히는 설명 방식이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밝히고, 분류는 여러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의 부류로 묶으며, 정의는 대상의 본질적 뜻이나 개념을 명확히 밝힌다. 제시문은 자동차라는 하나의 전체를 동력 발생 장치, 동력 전달 장치, 현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기타 장치로 나누어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비교'가 틀리다. 제시문은 둘 이상의 자동차나 장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하나의 자동차를 구성 장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이다.
② X — '분류'가 틀리다. 분류는 여러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부류끼리 묶는 방식인데, 제시문은 여러 자동차를 부류로 묶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동차라는 전체를 구성 요소로 나누는 '분석'이다.
③ O — 자동차라는 전체를 동력 발생 장치, 동력 전달 장치, 현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기타 장치로 나누고 각 기능을 설명하므로 분석에 해당한다.
④ X — '정의'가 틀리다. 제시문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치의 개념과 본질적 뜻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동차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이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 첫 문장의 '몇 가지로 나뉜다'만 보고 ② 분류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여러 대상을 부류별로 묶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하나의 전체를 부품과 장치라는 부분으로 쪼갰으므로 분석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 대상의 수와 처리 방식을 확인한다. 하나의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면 분석, 여러 대상을 기준에 따라 묶으면 분류, 둘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밝히면 비교, 대상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면 정의이다.

암기 포인트

하나를 쪼개면 분석, 여럿을 묶으면 분류이다.

NoteBase

문 5. 높임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할머니, 엄마가 빨리 오라셔요.
② 이어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③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내일 학교에 오실 겁니다.
④ 선생님께서 중간고사 이후 엄마를 한번 뵙고 싶으시대요.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높임의 대상과 방식이 문장 속 인물 관계에 맞는지, 특히 가족 관계에서 압존법이 바르게 쓰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시-'나 '께서' 등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객체 높임은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뵙다' 같은 특수 어휘로 높이는 표현이다.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사람과 관련된 말이나 신체 일부 등을 높여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압존법은 더 높은 사람 앞에서 그보다 낮은 사람을 높이는 표현을 삼가는 방식이며, 전통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보다 낮은 엄마를 '오라셔요'의 '-시-'로 높였으므로 가족 관계의 압존법에 어긋난다. '할머니, 엄마가 빨리 오라고 해요.'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O — '말씀'과 '있으시겠습니다'를 사용하여 교장 선생님과 관련된 말을 높임으로써 교장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인 표현이다.
③ O — '오실'의 '-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인 표현이다. 가족이 아닌 선생님에게 말하는 상황이므로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
④ O — '께서'와 '싶으시대요'는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뵙다'는 만남의 대상인 엄마를 높인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각각 알맞게 쓰인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오라셔요'가 공손하게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높임 표현은 높임말의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문장의 주체 사이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높임 표지가 누구를 높이는지 찾고, 그 인물이 듣는 사람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한다. 가족 관계에서 더 높은 사람 앞에 그보다 낮은 사람을 주체로 세웠다면 '-시-'를 썼는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가족 관계의 압존법에서는 더 높은 사람 앞에서 그보다 낮은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고향을 떠난지 3년은 지났을 게다.
② 이 음식은 먹을만은 하지만 좀 비싸네.
③ 당장에라도 항의하러 올 듯이 고래고래 고함을 치더구나.
④ 가을 하늘은 저렇게도 공활한 데 높기도 하고 맑기도 하구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연결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쓰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 홀로 쓰이지 못하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예: 떠난 지, 먹을 만, 올 듯이.
연결 어미: 앞 절과 뒤 절을 이어 주는 어미로, 어간에 붙여 쓴다. 예: 공활한데.

선지별 해설

① X —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떠난지'가 아니라 '떠난 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X — '만'은 '그럴 정도가 됨'이나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은'은 그 뒤에 붙은 보조사이다. '먹을만은'이 아니라 '먹을 만은'으로 써야 한다.
③ O — '듯이'는 앞말의 내용을 비슷하게 빗대는 의존 명사이고 관형사형 '올'의 꾸밈을 받으므로, '올 듯이'로 띄어 쓴 것이 옳다.
④ X — 여기의 '-ㄴ데'는 앞뒤 절을 이어 '공활하면서 높고 맑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공활한 데'가 아니라 '공활한데'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듯이'와 ④의 '-ㄴ데'를 모두 의존 명사처럼 띄어 쓰기 쉽다. '듯이' 앞은 관형사형 '올'이므로 띄지만, ④의 '-ㄴ데'는 두 절을 잇는 어미이므로 붙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이 명사처럼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면 띄어 쓰고, 앞 절과 뒤 절을 잇는 어미이면 앞말에 붙여 쓴다. 특히 '데'가 장소·경우를 뜻하면 의존 명사이고, 뒤 절을 이어 주면 '-ㄴ데/-는데'라는 어미이다.

암기 포인트

의존 명사는 띄고, 어미는 붙인다: 떠난 지·먹을 만·올 듯이 / 공활한데.

NoteBase

문 7. 다음 시가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동지(冬至)ㅅ돌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① 강호(江湖)에 ᄀᆞ올이 드니 고기마다 술져 잇다.
소정(小艇)에 그물 시러 흘리 ᄠᅴ여 더뎌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히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② 오백년(五百年)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ᄒᆞ되 인걸(人傑)은 간 ᄃᆡ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ᄭᅮᆷ이런가 ᄒᆞ노라.

③ ᄒᆞᆫ 손에 막ᄃᆡ 잡고 ᄯᅩ ᄒᆞᆫ 손에 가ᄉᆡ 쥐고,
늙ᄂᆞᆫ 길 가ᄉᆡ로 막고 오ᄂᆞᆫ 백발(白髮) 막ᄃᆡ로 치려터니,
백발(白髮)이 제 몬져 알고 즈럼길노 오더라.

④ 이화우(梨花雨) 흣ᄲᅮ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ᄒᆞᆫ 님,
추풍 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ᄉᆡᆼ각ᄂᆞᆫ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ᄭᅮᆷ만 오락가락 ᄒᆞ노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시조와 각 선지의 중심 정서를 파악하여,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공통으로 드러난 작품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시된 시조의 화자는 동짓달의 긴 밤을 잘라 두었다가 임이 오는 날 펼치고 싶다고 표현한다. 이는 긴 겨울밤을 견디며 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정서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소재가 아니라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느끼는 중심 감정을 비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강호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과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다. 제시 시조와 정서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자연 속 한가로운 삶과 연군의 정이 중심이다.

② X
오백 년 도읍지의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사라진 모습을 보며 지난 왕조와 태평했던 시절을 회고한다. 제시 시조와 정서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망국에 대한 회고와 무상감이 중심이다.

③ X
가시와 막대로 늙음과 백발을 막으려 하지만 백발이 지름길로 먼저 온다고 표현한다. 제시 시조와 정서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늙음을 피할 수 없는 데서 오는 탄식과 무상감이 중심이다.

④ O
배꽃 흩날리던 때 울며 헤어진 임을 떠올리고, 멀리 있는 임도 자신을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며 외로운 꿈만 오간다고 한다.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제시 시조와 가장 유사하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 외로움이나 탄식의 분위기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분위기가 쓸쓸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정서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②는 망국의 회고, ③은 늙음의 탄식이고, 임과의 이별 및 그리움이 직접 드러나는 것은 ④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시 작품에서 화자의 대상, 처지, 중심 감정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 작품은 대상이 임이고, 처지는 임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중심 감정은 그리움이다. 선지에서도 이 세 요소가 가장 많이 겹치는 작품을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긴 밤을 접어 임 오는 날 펼침은 기다림과 그리움이고, 이화우 속 이별한 임을 떠올림도 그리움이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컴퓨터 모형화와 모의실험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인공적인 3차원의 시각적 및 그 밖의 감각적 환경과 상호 반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상현실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의 세계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의 기술과 과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인공적인 세계이다. 즉 가상현실은 인공 정원이나 인공 호수처럼 과학 기술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다. 가상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 때문에 환상이나 신기루 같은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쉽지만 가상현실은 현실이 아님에도 실재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 환경이다.

① 상호 반응에 의한 가상현실
② 인공적 세계로서의 가상현실
③ 경험적 세계로서의 가상현실
④ 감각적 환경에 의한 가상현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서 반복·강조된 중심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목은 글의 일부 정보만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글 전체의 중심 화제를 포괄해야 한다. 이 글은 가상현실을 컴퓨터 모형화와 모의실험을 통해 만든 인공적 세계로 설명하고, 인공 정원과 인공 호수에 빗대어 그 성격을 강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상호 반응'은 가상현실의 한 특성일 뿐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상호 반응에 의한'이 아니라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적 세계로서의' 가상현실이라고 해야 글의 핵심에 맞는다.
② O — 글은 가상현실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세계가 아니라 물리적 세계의 기술과 과학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만들어 낸 인공적 세계라고 거듭 설명한다.
③ X — 글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가상현실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경험적 세계로서의'가 아니라 '인공적 세계로서의' 가상현실이 올바른 표현이다.
④ X — 감각적 환경은 사용자가 상호 반응하는 대상이라는 일부 정보만 나타내므로 중심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 '감각적 환경에 의한'이 아니라 '컴퓨터 모형화와 모의실험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 세계로서의' 가상현실이라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첫 문장에 직접 제시된 표현이라 눈에 띄지만 가상현실의 작동 방식이나 구성 요소만 가리킨다. 제목은 특정 문장의 소재보다 글 전체에서 반복되는 '자연적 세계가 아닌 인공적 세계'라는 핵심을 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을 고를 때는 각 선지가 글 전체를 포괄하는지 확인한다. 도입과 결론에서 되풀이되거나 예시가 뒷받침하는 핵심 개념을 우선하고, 한 문장에만 해당하는 세부 특징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제목은 세부 기능이 아니라 전체 중심 내용이다. 이 글의 핵심은 '가상현실은 과학 기술로 만든 인공적 세계'이다.

NoteBase

문 9. 사이시옷의 쓰임이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뒷편, 머리말, 양칫물
② 장밋빛, 갯수, 예삿일
③ 핑크빛, 수돗물, 아랫쪽
④ 하굣길, 북엇국, 최댓값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과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이시옷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등 일정한 소리 변화가 있을 때 적는다. 이때 합성어를 이루는 말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순우리말이어야 한다.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은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며, 외래어가 결합한 말에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머리말'은 소리의 덧남이나 된소리되기가 없어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양칫물'은 '양치+물'의 결합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러나 '뒷편'은 잘못된 표기이다. 틀린 표현 '뒷편'은 '뒤편'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장밋빛'은 '장미+빛'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고, '예삿일'도 '예사+일'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러나 '갯수'는 잘못된 표기이다. '개수'는 한자어 '개(個)+수(數)'로 이루어진 말이므로 틀린 표현 '갯수'는 '개수'로 고쳐야 한다.

③ X
'핑크빛'은 외래어 '핑크'가 결합한 말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수돗물'은 '수도+물'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러나 '아랫쪽'은 잘못된 표기이다. '쪽'은 이미 된소리로 시작하므로 틀린 표현 '아랫쪽'은 '아래쪽'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하굣길'은 '하교+길', '북엇국'은 '북어+국', '최댓값'은 '최대+값'의 결합에서 각각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세 단어가 모두 올바른 표기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이시옷이 들어간 단어만 찾는 문제가 아니라 사이시옷을 올바르게 쓰거나 올바르게 쓰지 않은 단어로만 묶인 선지를 찾는 문제이다. 특히 '갯수'와 '아랫쪽'은 실제 발음이 강하게 들려 사이시옷을 넣기 쉽지만, 표준 표기는 각각 '개수'와 '아래쪽'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합성어인지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뒷말에서 된소리나 'ㄴ' 소리의 덧남이 생기는지를 살핀다. 이어 한자어끼리의 결합이나 외래어 결합처럼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뒤편·개수·아래쪽에는 사이시옷이 없고, 하굣길·북엇국·최댓값에는 사이시옷이 있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② 형은 이번 일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③ 그녀는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자 계속 노력했다.
④ 피해를 본 승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단어의 음이 같은 '소'가 실제로도 같은 한자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정(所定)은 '정해진 바', 소견(所見)은 '생각이나 의견', 소임(所任)은 '맡은 일'을 뜻한다. 이 세 단어의 '소'는 모두 '바 소(所)'이다. 반면 소동(騷動)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이는 일'을 뜻하며, '소'는 '떠들 소(騷)'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소정(所定)'의 '소'는 '바 소(所)'이므로 나머지 ②, ③과 같은 한자이다. 다른 한자라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소정의 소는 所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X — '소견(所見)'의 '소'는 '바 소(所)'이므로 ①, ③과 같은 한자이다. 다른 한자라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소견의 소는 所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X — '소임(所任)'의 '소'는 '바 소(所)'이므로 ①, ②와 같은 한자이다. 다른 한자라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소임의 소는 所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소동(騷動)'의 '소'는 '떠들 소(騷)'이다. ①~③의 '바 소(所)'와 한자가 다르므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네 단어가 모두 '소'로 발음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발음만 비교하지 않고 단어의 뜻과 한자 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음 한자를 묻는 문제에서는 각 단어의 뜻을 먼저 풀고 한자어를 복원한다. '정해진 바·본 바인 의견·맡은 바'는 所로 연결되고, '떠들썩함'은 騷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소정·소견·소임은 所, 소동은 騷이다.

NoteBase

문 11.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은?

① 집현전 – Jiphyeonjeon ② 종로 – Jongro

③ 독도 – Dokdo ④ 울릉 – Ulleung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지명의 실제 발음과 음운 변동을 로마자로 정확히 옮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종로'처럼 발음이 [종노]로 바뀌는 경우 그 음운 변동을 반영하여 Jongno로 적는다. 다만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집현전'은 Jiphyeonjeon으로 적으므로 표기법에 맞는다.
② X — '종로'는 [종노]로 발음되므로 'Jongro'가 아니라 Jongno로 적는다. 틀린 표현 '종로-Jongro'는 '종로-Jongno'로 고쳐야 한다.
③ O — '독도'의 된소리 발음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Dokdo로 적는다.
④ O — '울릉'에서 이어지는 두 'ㄹ'은 ll로 적으므로 Ulleung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한글 철자 'ㄹ'만 보고 r로 옮기면 Jongro라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로마자 표기는 철자를 기계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 발음 [종노]를 반영하므로 Jongno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표준 발음을 확인한 뒤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지를 판단한다. '종로→[종노]→Jongno'처럼 발음 단계를 거치면 철자에 끌리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종로는 [종노], 로마자는 Jongno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때 성진이 물결을 열고 수정궁에 나아가니 용왕이 매우 기뻐하며 친히 궁궐 밖에 나와 맞았다. 그리고 상좌에 앉히고 진수성찬을 갖추어 잔치하여 대접하고 손수 잔을 잡아 권하였다. 이에 성진이 말하되,
>
>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狂藥)이라 불가(佛家)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바이니 감히 파계를 할 수 없나이다."
>
> 용왕이 말하되,
>
> "부처의 오계(五戒)에 술을 경계하고 있음을 내 어찌 모르리오? 하나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 세상의 광약과는 달라 다만 사람의 기운을 화창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않나이다."
>
> 왕이 계속 권하자 성진이 이를 거역하지 못하여 석 잔을 연거푸 마시고 용왕께 하직하고는 바람을 타고 연화봉으로 향했다. 산 아래에 이르자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달아올랐다. 마음으로 생각하되,
>
>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여겨 나무라지 않으리오?'
>
> 하고 즉시 냇가에 나아가 웃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얼굴을 씻었다.
>
> — 김만중, 「구운몽」에서 —

① 성진은 사부의 질책을 두려워한다.
② 성진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다.
③ 성진은 세속적 쾌락의 허망함을 깨닫는다.
④ 성진은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려고 노력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인물의 말과 행동, 속마음을 근거로 심리와 태도를 추론하고,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은 해석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물의 심리와 태도는 대사, 행동, 내적 독백에 드러난 근거를 연결해 판단한다. 이 장면에서 성진은 불가의 계율을 이유로 술을 거절하지만 결국 마시고, 얼굴이 붉어진 것을 사부가 보고 나무랄까 염려하여 물로 얼굴을 씻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성진은 붉어진 얼굴을 사부가 이상하게 여겨 나무랄까 걱정하여 얼굴을 씻는다. 이는 사부의 질책을 두려워하는 태도이다.
② O — 성진은 술이 불가에서 크게 경계하는 광약이라고 말하고, 술을 마신 뒤에는 사부에게 들킬까 염려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음주가 계율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X — 이 장면에서 성진은 술을 마신 뒤 취기가 올라 얼굴이 붉어진 것을 감추려 할 뿐, 세속적 쾌락의 허망함을 깨닫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세속적 쾌락의 허망함을 깨닫는다'이며, 올바르게는 '계율을 어기고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날까 염려한다'이다.
④ O — 성진은 처음에 불가의 오계와 술의 해로움을 근거로 음주를 거절한다. 비록 용왕의 계속된 권유에 굴복하지만, 처음에는 금주라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오답 포인트

작품 전체의 주제나 이후의 전개를 현재 장면에 미리 적용하면 ③을 적절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 대목의 직접적인 심리는 세속적 쾌락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계율을 어긴 사실을 사부에게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에 대한 설명은 해당 장면의 대사·행동·내적 독백에서 직접 근거를 찾는다. 작품 전체의 주제와 관련된 말이라도 제시된 장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적절한 해석으로 보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거절은 원칙 고수, 세수는 질책에 대한 두려움이다. 허무의 깨달음은 이 장면에 없다.

NoteBase

문 13.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불러 보리라.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황동규, 「즐거운 편지」 –

①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화자의 정서를 자연현상과 연결하여 산문체로 진술하고 있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적 대상의 외양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④ 비장한 어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떤 소재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시상이 어떤 문체와 어조로 전개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산문체는 문장을 산문처럼 자연스럽게 이어 가는 표현 방식이다. 이 시는 그대를 기다리는 화자의 사랑과 기다림을 눈이 그치고 꽃이 피며 낙엽이 지고 다시 눈이 오는 자연의 순환과 연결하여 산문체로 진술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진실로 진실로'와 같은 반복은 나타나지만, 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인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반복되는 부사와 평서형 진술을 통해 사랑의 진실성을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② O — 화자는 자신의 기다림과 사랑을 눈, 꽃, 낙엽 등 자연 현상의 순환과 연결하고, 일정한 운율이나 행 구분보다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 가는 산문체로 진술한다.
③ X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눈이 그치고 꽃이 피며 낙엽이 지는 변화는 나타나지만, 이는 자연의 순환이지 '그대'라는 시적 대상의 외양 변화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기다리는 동안 계절과 자연 현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한다고 해야 한다.
④ X — 이 시는 결연하고 장중한 비장한 어조를 반복하지 않고, 사랑과 기다림을 차분하고 사색적인 어조로 진술한다. 올바르게는 담담한 산문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반복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설의적 표현의 반복'으로 잘못 바꾼 선지이다. ③은 계절의 변화와 시적 대상인 '그대'의 외양 변화를 혼동하게 하고, ④는 사랑의 간절함을 비장한 어조로 오인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항에서는 선지의 핵심 용어가 실제 문장 형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의문문이 없으면 설의법으로 볼 수 없고, 자연물의 변화와 인물의 외양 변화도 구분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눈·꽃·낙엽·다시 눈은 자연의 순환이고, 그 흐름에 사랑과 기다림을 연결한 산문체의 시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실시하다 보면, 때로는 선하고 훌륭한 인물이 권력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위선적이고 사악한 인물이 권력을 잡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주권재민 사상과 법치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이를 잘 가꾸기만 한다면, 위선적이고 사악한 인물과 정치 세력을 국민이 언제든 합법적으로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인간이 발명한 정치제도 중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정치제도라는 점, 그리고 이 점을 알고 주권자로서 참여하여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
> 그러나 러셀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의 힘은 때로 헌법과 법률의 제한을 넘어서기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국가는 때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이를 은폐하기도 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권력을 분산하고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아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기에 주권자의 정치 참여는 필수적이다.

① 민주주의는 주권재민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 참여를 통해 제도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②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때로는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국민을 감시해야 한다.
③ 민주주의는 철저한 권력 분산과 강력한 견제 장치의 마련을 통해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④ 민주주의는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중심 주장인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와 주권자의 정치 참여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민주주의는 주권재민 사상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권력자를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정치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므로 제도만으로 권력의 남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여 제도의 모순을 고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민주주의는 주권재민과 법치주의를 토대로 하며, 국민은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해 위선적이거나 사악한 권력자와 정치 세력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고 제도의 모순을 개선할 수 있다.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공권력이 국민을 감시해야 한다'이다. 제시문은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이를 은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바르게는 독재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이 주권자로서 공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이다. 제시문은 권력을 철저히 분산하고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부패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권력 분산과 견제 장치는 부패를 줄이는 수단이지만,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주권자의 지속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제시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이를 은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제도이더라도 국가의 기만과 권력 남용은 발생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이 민주주의를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 중 부작용이 가장 적다고 평가한 것을 '완전한 제도'라는 뜻으로 확대하면 ③이나 ④를 고르게 된다. 또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는 감시의 방향을 뒤집어 '공권력이 국민을 감시한다'고 한 ②에도 주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의 앞부분에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뒷부분에서 제도의 한계와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선지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처럼 한계를 부정하는 절대적 표현을 쓰거나 국민과 공권력의 감시 방향을 뒤집으면 제시문과 어긋난다.

암기 포인트

민주주의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며, 제도의 한계는 주권자의 지속적인 정치 참여로 보완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농사는 열심으로 하는 것 가튼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빗뿐. 이러다가는 결말엔 봉변을 면치 못 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기퍼서 코를 골며 자는 안해를 깨웟다. 박게 나아가 우리의 세간이 멋개나 되는지 세여 보라 하엿다. 그리고 저는 벼루에 먹을 갈아 붓에 찍어들엇다. 벽을 발른 신문지는 누러케 꺼럿다. 그 우에다 안해가 불러 주는 물목대로 일일히 나려 적엇다. 독이 세개, 호미가 둘, 낫이 하나, 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집이 석단까지 그담에는 제가 빗을 엇어온 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쪽 적어 노앗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알에다 달아노코. 그엽으론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 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박게 업노라, 나는 오십 사원을 갑흘 길이 업스매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게 아니겟고 서루 의론하야 어굴치 안토록 분배하야 가기 바라노라 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닷고 울타리 밋구멍으로 세식구가 빠저나왓다.
>
>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든 첫날이엇다.
>
> — 김유정, 「만무방」에서 —

① 작중인물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일탈적 방식을 선택하였다.
② 농민들의 물질만능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엿보인다.
③ 작중인물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④ 작가는 농촌 궁핍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행동을 근거로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실 도피적 태도란 현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피하려는 태도이다. 응칠이는 빚쟁이들의 이름과 금액을 벽에 적고 성명서를 남기는 주술적 방법에 기대며, 몰래 집을 빠져나간다. 이는 빚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보다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회피하는 모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응칠이는 빚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빚쟁이들의 이름과 금액을 적어 둔 뒤 성명서를 남기고 몰래 도망친다. 주술적 행위와 도피로 현실을 벗어나려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농민들의 물질만능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지문은 농민 일반의 물질 숭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빚에 몰린 응칠이가 비합리적 방법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③ X — 틀린 표현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다. 응칠이가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도망치는 모습에서는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피하는 인물의 절박하고 비합리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아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농촌 궁핍의 원인을 제시'했다는 부분이다. 지문은 응칠이가 빚을 지고 도망치는 상황은 보여 주지만, 농촌이 궁핍해진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농촌 궁핍 속에서 빚에 시달리는 인물의 대응 방식을 제시했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지문에 빚, 농촌의 궁핍, 도망이라는 소재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농민 일반의 물질만능주의나 농촌 궁핍의 원인까지 확대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선지 판단은 응칠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그 행동에서 직접 드러나는 태도에 근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인물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지, 외면하는지를 확인한다. 비합리적인 방법에 기대고 현장에서 달아난다면 현실 도피적 태도로 판단한다. 또한 작품에 어떤 소재가 등장하는 것과 그 소재의 원인을 작품이 직접 제시하는 것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주술적 해결책에 의존하고 도망침은 현실 도피적 태도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규장(奎章)이란 제왕의 시문이나 글씨를 이르는 말로, 규장각은 역대 임금의 시문과 글씨를 보관하기 위한 왕실 도서관을 가리킨다. 정조는 왕실 도서관이 여러 차례 화재와 전란 등으로 부침을 겪는 것을 보고 크게 탄식했다. 그래서 즉위 이튿날, 창덕궁의 후원에 규장각을 건립하라고 명령했다. 부친인 사도세자의 폐위로 정통성이 흔들린 정조는 자신이 조선 왕실의 적통임을 분명히 한다는 뜻에서 선왕인 영조의 시문을 정리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도했다. 이렇게 정리된 선왕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 규장각이다.
>
> 왕실에 도서관을 두는 제도는 중국 송나라 때 확립된 바 있다. 송나라에서는 용도각, 천장각, 보문각 등 독립적인 건물을 두어 황제에 따라 별도로 시문과 글씨를 보관했다. 정조는 임금별로 시문과 글씨를 따로 관리하는 송나라의 제도가 번거롭다고 여겨 하나의 궁궐 전각에 함께 봉안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임금이 직접 지은 글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어제각(御製閣)이라 했다가 세조가 직접 쓴 '奎章閣'이라는 액자를 현판으로 옮겨 달면서 규장각이라는 명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
> 규장각을 설립한 사람은 정조지만 그 구상은 세조 때의 학자 양성지가 제공했다.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안 정조는 "규장각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오랜 세월을 두고 합치함이 있기에 그 말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생각하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양성지의 문집을 편찬하여 간행하게 했다. 또한 정조는 양성지의 외손 30여 명이 홍문관 요직에 등용되었던 것을 기리고자 규장각에서 『양문양공외예보(梁文襄公外裔譜)』를 편찬하게 했다.

① 정조는 즉위 초부터 왕실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② 정조는 송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③ 규장각이라는 명칭은 정조 시대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④ 정조는 양성지와 그의 후손들을 기리려고 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규장각의 설립 목적, 명칭의 유래, 송나라 제도와의 차이, 양성지에 대한 정조의 태도를 제시문의 문장과 정확히 대조하는 문제이다. 발문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으므로 제시문과 어긋나는 선지를 찾아야 한다.

NoteBase

핵심 개념

규장각은 역대 임금의 시문과 글씨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정조가 설립한 왕실 도서관이다. 송나라는 황제별로 독립된 건물에 자료를 나누어 보관했지만, 정조는 이 방식이 번거롭다고 보아 하나의 궁궐 전각에 함께 봉안하도록 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조는 즉위 이튿날 규장각 건립을 명령했고, 왕실의 적통임을 분명히 하려고 선왕 영조의 시문을 정리했다. 따라서 즉위 초부터 왕실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은 제시문과 부합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송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이다. 정조는 송나라의 임금별 분산 보관 제도를 번거롭게 여겨 그대로 따르지 않고, 여러 임금의 시문과 글씨를 하나의 전각에 함께 봉안하도록 했다. 올바르게는 '정조는 송나라 제도를 참고하되 그 보관 방식을 바꾸어 왕실 문헌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했다'이다.
③ O — '규장각'이라는 글자는 정조 이전의 임금인 세조가 직접 쓴 액자에 이미 존재했다. 정조 때 그 액자를 현판으로 옮겨 달면서 규장각이라는 명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선지는 제시문과 부합한다.
④ O — 정조는 규장각 구상을 먼저 제시한 양성지를 기려 그의 문집을 편찬·간행하게 했고, 양성지의 후손들을 기리고자 『양문양공외예보』도 편찬하게 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송나라에 왕실 도서관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만 이용해 정조가 그 제도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바꾸어 놓았다. 제시문은 오히려 정조가 송나라의 분산 보관 방식을 번거롭게 여겨 하나의 전각에 통합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제시문에 나온 직접적인 목적은 왕실 문헌의 체계적 보관과 정통성 확립이지 막연한 왕권 강화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인물, 시점, 목적, 행위를 각각 제시문의 표현과 대조한다. '참고했다'와 '그대로 답습했다', '정통성을 확립했다'와 '왕권을 강화했다'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범위와 의미가 달라진 표현을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송나라는 임금별 분산 보관, 정조의 규장각은 한 전각에 통합 보관이다.

NoteBase

문 17.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① 그 건물은 네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도록 지어졌다.
② 그 회사는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됐다.
③ 들판이 온통 눈으로 덮힌 광경은 나를 몇 년 전 추억으로 이끌었다.
④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단어와 표준어 표기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떠받치다는 아래에서 받쳐 지탱한다는 뜻이다. 결제는 돈이나 어음의 대금을 주고받아 거래를 끝내는 것이고, 결재는 상급자가 안건을 승인하는 것이다. 덮다의 피동형은 덮이다이다. 갈음하다는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고, 가름하다는 나누거나 구별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둥이 지붕을 아래에서 받쳐 지탱한다는 문맥이므로 '떠받치도록'의 쓰임이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어음을 결재하지'이다.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어음을 결제하지'로 고쳐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눈으로 덮힌'이다. '덮다'의 피동형은 '덮이다'이므로 '눈으로 덮인'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치사를 가름할까'이다. 치사를 다른 말로 대신한다는 뜻이므로 '치사를 갈음할까'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소리가 같은 '결제'와 '결재', ④는 형태가 비슷한 '갈음'과 '가름'을 바꾸어 놓았고, ③은 잘못 쓰기 쉬운 '덮히다'를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단어를 문맥 속 의미로 먼저 바꾸어 본 뒤, 돈을 치르는지는 '결제', 안건을 승인하는지는 '결재', 대신하는지는 '갈음', 나누거나 구별하는지는 '가름'으로 판단한다. 피동 표현은 기본형과 표준 피동형을 함께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대금은 결제, 승인은 결재, 대신은 갈음, 구별은 가름, 덮다의 피동은 덮이다이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올림픽 유치를 두고 두 도시가 치열한 _____을 벌이고 있다.

① 附合 ② 整合
③ 併合 ④ 競合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합(合)' 계열 한자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두 도시가 올림픽 유치를 두고 치열하게 서로 겨룬다'는 뜻에는 競合이 알맞다.

핵심 개념

競合(경합)은 서로 맞서 겨룬다는 뜻이다. 附合(부합)은 서로 붙어 하나로 합쳐짐, 整合(정합)은 가지런히 들어맞아 모순이 없음, 併合(병합)은 둘 이상을 하나로 합침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附合은 서로 붙어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므로 두 도시가 유치를 놓고 겨루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 '치열한 附合'이 아니라 '치열한 競合'이 알맞다.
② X — 整合은 논리나 체계가 모순 없이 서로 들어맞는다는 뜻이므로 경쟁 상황을 나타내지 못한다. '치열한 整合'이 아니라 '치열한 競合'이 알맞다.
③ X — 併合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대상 등을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므로 두 도시가 유치를 놓고 맞서는 상황과 다르다. '치열한 併合'이 아니라 '치열한 競合'이 알맞다.
④ O — 競合은 서로 맞서 겨룬다는 뜻이다. 두 도시가 올림픽 유치를 차지하려고 경쟁한다는 문맥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오답 포인트

네 한자어가 모두 '合'을 포함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치열한'과 '벌이다'는 합치거나 들어맞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겨루는 관계를 요구하므로 競(다툴 경)이 들어간 競合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속 주체들의 관계를 먼저 파악한다. 서로 맞서 경쟁하면 競合, 하나로 합치면 併合, 논리적으로 들어맞으면 整合, 서로 붙어 하나가 되면 附合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競은 '겨루다'의 뜻이므로 '치열하게 겨룸'은 競合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_{11}C$(탄소), $_{13}N$(질소), $_{15}O$(산소) 등 양전자 변환을 일으키는 동위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양전자는 가까이 있는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하면서 에너지가 0.511 MeV인 소멸 방사선 2개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방출한다. 환자에게 이같은 동위 원소 표지 화합물을 투여해 소멸 방사선들을 검출하면 체내 동위 원소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양전자 방출을 이용한 단층 촬영 기법을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이라고 부른다.
>
> 국내에서는 18F-FDG라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PET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8F-FDG는 포도당과 구조가 비슷해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있는 병의 진단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암세포는 정상 세포에 비해 많은 세포 분열과 증식을 해 18F-FDG 섭취가 정상 세포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PET로 영상화하면 암의 발병 부위가 뚜렷이 보인다.

① 대상을 관찰하여 받은 느낌을 묘사하고 있다.
② 대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그 사례를 들고 있다.
③ 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대상이 발전해 온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은 PET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뒤 18F-FDG를 이용한 암 진단 사례를 제시한다.

핵심 개념

작동 원리 설명은 대상이 어떤 과정과 인과 관계로 기능하는지를 밝히는 방법이다. 사례 제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방법이다. 이 글은 양전자와 전자의 결합·소멸, 방사선의 검출과 위치 파악이라는 PET의 원리를 밝히고, 18F-FDG를 이용해 암의 발생 부위를 영상화하는 사례를 덧붙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나 인상을 묘사한 글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관찰하여 받은 느낌을 묘사'이다. 올바르게는 PET의 객관적인 작동 원리와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② O — 양전자가 전자와 결합해 소멸하면서 방사선 두 개를 방출하고, 이를 검출하여 동위 원소의 위치를 알아내는 PET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이어 18F-FDG가 암 진단에 쓰이는 사례를 든다.
③ X — PET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견주어 평가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이다. 올바르게는 PET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18F-FDG의 활용 사례를 제시한다고 해야 한다.
④ X — PET이 시대에 따라 발명되고 발전해 온 역사를 시간 순서로 제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발전해 온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제시'이다. 올바르게는 PET의 작동 과정과 암 진단에 이용되는 사례를 설명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양전자 방출부터 방사선 검출까지의 순서가 제시되어 있어 ④의 '과정'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장치의 작동 순서이지, 시대에 따른 역사적 발전 과정이 아니다. 또한 암의 발생 부위가 뚜렷이 보인다는 효용이 언급되지만 단점과 대조하지 않으므로 ③의 장단점 비교도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의 주요 문장들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한다.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인과적으로 밝히면 작동 원리 설명이고, 구체적인 물질이나 사용 장면을 덧붙이면 사례 제시이다. 시간 순서가 있더라도 시대 변화가 아니라 작동 단계라면 통시적 설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PET 글의 구조는 '작동 원리 설명 → 18F-FDG 암 진단 사례'이다. 작동 순서는 역사적 발전 과정이 아니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세관(稅關)은 비행장, 항만, 국경 지대에서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 징수 및 검역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기관이다. 세관 업무 중 하나가 관세 징수인바, 관세란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입세를 의미한다. 관세는 국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점도 있지만, 국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단점도 있다. 관세로 인한 국내 경제 활동의 변화와 경제적 손실을 철강 시장을 예로 들어 알아보자.
>
> 자유 무역하에서는 무역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기 때문에 국내 철강 가격은 국제 철강 가격과 같다. 만일 수입 철강에 관세가 부과되면, 초기에는 수입 철강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국내 철강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 생산자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수입 철강 제품 정도로 가격을 더 올리게 된다. 중기로 접어들면 국산 제품이든 수입 제품이든 국내에서 유통되는 철강 제품의 가격은 부과된 관세만큼 상승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철강 생산자와 국내 철강 수요자의 행동이 변한다. 말기가 되면 국내 철강 생산자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철강의 공급을 늘리고, 수요자는 지출의 확대를 염려하여 소비를 줄이게 된다. 관세로 인하여 국내에서 거래되는 철강의 가격이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철강의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① 관세가 부과되는 초기에 국산품의 수요가 증가한다.
② 관세가 부과되는 초기에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③ 중기에 국산품의 가격이 수입품의 가격보다 상승한다.
④ 말기에 제품의 공급은 증가하고 제품의 수요는 감소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관세 부과 뒤 국내 철강 시장에서 수요·가격·공급이 초기, 중기, 말기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글의 서술과 정확히 대응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글에서는 관세 부과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국산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중기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이 모두 관세만큼 상승하며, 말기에는 국산품의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관세 부과 초기에는 수입 철강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산 철강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글에 제시되어 있다.
② O — 초기의 국산품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생산자들이 이익을 늘리려고 국산 철강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고 설명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국산품의 가격이 수입품의 가격보다 상승한다'이다. 중기에는 국산품과 수입품을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철강 제품의 가격이 부과된 관세만큼 상승한다. 따라서 국산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 제품의 국내 유통 가격이 함께 상승한다고 고쳐야 한다.
④ O — 말기에는 국내 철강 생산자가 공급을 늘리고 수요자는 소비를 줄이므로 제품의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국산품 가격도 상승한다'는 사실을 '국산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더 상승한다'로 바꾸어 비교 관계를 왜곡했다. 가격의 상승 여부와 두 가격 사이의 우열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간 표현에 따라 내용을 나눈 뒤 각 선지의 주어, 변화 방향, 비교 대상을 글과 대조한다. 특히 '상승한다'와 '~보다 상승한다'처럼 비교 기준이 추가된 표현은 원문에 그 비교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초기에는 국산품 수요 증가, 중기에는 국내 유통 가격의 동반 상승, 말기에는 공급 증가·수요 감소이다.

NoteBase